

노동통계연구

사회통계조사

강승복*

I. 서론

- 「사회통계조사」는 국민생활의 모습과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
 - － 1977년에 교육·보건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후 13개 부문으로 확대되었으며 매년 3개 부문을 선정해 조사 실시
 - － 본 통계는 기존 조사통계에서는 구할 수 없는 국민의 주관적 의식과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조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1979~95년까지는 주요 결과만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하였으나, 1996년부터 지역별·연령별 등의 자료를 포함한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
- 조사부문은 약 4년주기로 순환되고 있으며 노동부문에 대한 조사는 1998년에 실시되었고, 올해(2002년) 다시 조사부문에 포함될 예정임(표 1 참조).
 - － 이하에서는 「사회통계조사」의 조사부문 중 노동부문에 국한하여 조사결과 및 개선점을 기술할 것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표 1> 부문별 조사주기 및 조사년도

	주기	1979. 3	주기	1996. 9	1997		주기	1998. 10
					4	9		
1. 인구	5		5				5	
2. 가족	-		3				4	○
3. 소득과 소비	5	○	5				4	
4. 노동	3		3				4	○
5. 교육	3	○	3	○			4	
6. 보건	3	○	3				4	
7. 주거와 교통	5	○	3			○	4	
8. 정보와 통신	-		3		○		4	
9. 환경	-		3			○	4	
10. 복지	3	○	3				4	○
11. 문화와 여가	5		3	○			4	
12. 안전	5		3		○		4	
13. 사회참여	-		3				4	

II. 조사개요

- 사회통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함으로써 경제사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통계조사는 1977년에 최초 조사되었으며 1998년까지 7차례의 크고 작은 개편이 있었음(표 2 참조).
- 총 13개 부문 중 매년 3개부문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문별 조사주기는 약 4년
 - 조사시기는 조사대상주간(지정된 월의 15일이 포함된 주간) 다음 10일간이며, 조사대상은 전국 30,000 표본가구 내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약 7만명)임.
- 조사부문은 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등의 13개부문이며 이 중 노동부문은 최근 1998년에 조사되었음.
 - 조사방법은 면접타계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만 자계식 조사방법 병행

<표 2> 사회통계조사의 주요 개편연혁

	개 정 내 용
1977. 3	사회지표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목적으로 보건, 시간활용, 인구가동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조사
1978	사회지표체계 수립(통계국과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연구)
1979~84	총 8개부문 중 매년 4~5개 부문을 선정하고 부문당 평균 5개 조사항목에 대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
1987	1차 사회지표체계 개편(한국개발연구원)
1985~96	심층조사를 위해 조사부문을 2~3개부문으로 축소하는 대신 부문당 항목수를 확대하여 조사실시
1995	2차 사회지표체계 개편(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연 2회(4, 9월)조사로 변경(4개부문 조사)
1998	연 1회 조사로 환원(3개부문 조사)

- 조사결과는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수록되며 이 중 일부분을 「한국의 사회지표」에 발췌·수록하고 있음.
- 표본추출은 인구주택총조사 10% 실사표본 조사구 중에서 1차 추출단위 조사구를 설정한 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도시와 각 도의 동부, 읍면부로 구분하여 25개 지역별로 1차추출단위 조사구 명부를 작성
 - 25개 지역별로 작성된 1차 추출단위 조사구 명부에서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 표본규모(조사구수)를 결정한 후 크기의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을 가진 계통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표본조사구를 추출
- 조사결과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mathcal{U} 와 이에 대한 전체 숫자인 \mathcal{Y} 를 추정하여, 특성 비율인 $R = \frac{\mathcal{U}}{\mathcal{Y}}$ 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구부문>

$$\mathcal{Y} = \sum_h \hat{\mathcal{Y}}_h = \sum_i \hat{\mathcal{Y}}_{hi} = \sum_i M_{hi} \cdot Y_{hi}, \quad \mathcal{U} = \sum_h \hat{\mathcal{U}}_h = \sum_i \hat{\mathcal{U}}_{hi} = \sum_i M_{hi} \cdot U_{hi}$$

$$M_{hi} = \frac{\hat{X}_{hi}}{X_{hi}} \quad X_{hi} = \sum_j X_{hij}, \quad R = \frac{\mathcal{U}}{\mathcal{Y}}$$

$$R = \sum_h W_h \cdot \hat{R}_h = \sum_h W_h \cdot \sum_i W_{hi} \cdot \hat{R}_{hi}$$

$$\hat{R}_{hi} = \frac{\hat{\mathcal{U}}_{hi}}{\hat{\mathcal{Y}}_{hi}} \quad \hat{W}_h = \frac{\hat{\mathcal{Y}}_h}{\mathcal{Y}} \quad \hat{W}_{hi} = \frac{\hat{\mathcal{Y}}_{hi}}{\hat{\mathcal{Y}}_h}$$

<가구원부문>

$$\begin{aligned}
 \bar{Y} &= \sum_s s \bar{Y}_s, \quad s \bar{Y} = \sum_k s_k \bar{Y}_k, \quad s_k \bar{Y} = \sum_h s_k \hat{Y}_h, \quad s_k \hat{Y}_h = \sum_{hi} s_k \hat{Y}_{hi} \\
 \bar{U} &= \sum_s s \bar{U}_s, \quad s \bar{U} = \sum_k s_k \bar{U}_k, \quad s_k \bar{U} = \sum_h s_k \hat{U}_h, \quad s_k \hat{U}_h = \sum_{hi} s_k \hat{U}_{hi} \\
 s_k \hat{Y}_{hi} &= s_k M_{hi} \cdot s_k Y_{hi}, \quad s_k \hat{U}_{hi} = s_k M_{hi} \cdot s_k U_{hi} \\
 s_k M_{hi} &= \frac{s_k \hat{X}_{hi}}{s_k X_{hi}}, \quad s_k X_{hi} = \sum_j s_k X_{hij}, \quad R = \frac{\bar{U}}{\bar{Y}}
 \end{aligned}$$

위의 공식에서

\bar{Y}, \bar{U} = 특성을 갖는 추정수치

Y, U = 표본에서 특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된 수치

M = 승수, W = 가중치, \bar{X} = 추계치, X = 표본에서 조사된 수치

s = 성을 나타내는 첨자, k = 연령을 나타내는 첨자

h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동부 및 읍면부를 나타내는 첨자

j = 표본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 1998년의 조사항목은 기본사항 10개와 가족부문 11개, 복지부문 9개, 노동부문 5개 항목이 조사됨(표 3 참조).

Ⅲ. 조사결과(노동부문)

- 1998년 가족, 복지, 노동부문 조사는 총 28,559가구, 70,139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됨.
-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안정성’(41.5%)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발전성·장래성’(20.7%), ‘수입’(18.2%), ‘보람·자아성취’(16.2%), ‘명예·명성’(2.1%) 순으로 나타났음.
 - 1995년과 비교하면 ‘수입’과 ‘발전성’은 감소한 반면, ‘안정성’은 11.9%포인트나 크게 증가한(29.6%→41.5%) 것으로 나타나 안정된 직업을 찾으려는 IMF 이후의 직업선택의 인식변화를 보여줌.

<표 3> 「사회통계조사」 조사항목(1998)

	조 사 항 목	조 사 대 상
기본사항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지난 1주간 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15세 이상 가구원(가구주 포함)
가족: 11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부모부양 여부 -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 노후준비 방법 - 청소년 고민에 대한 견해 -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 - 결혼에 대한 태도 - 이혼에 대한 태도 - 재혼에 대한 태도 -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 중요한 생활관심사 - 가정생활 만족도 	15세 이상(가구주, 배우자) 15세 이상 가구원(가구주 포함) " " 24세 이하 가구원(가구주 포함) 15세 이상 가구원(가구주 포함) " " 함께 사는 부부(15세 이상) 중 부인 15세 이상 가구원(가구주 포함) "
복지: 9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 - 취학전 자녀 양육의견 - 성차별에 대한 인식 -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 생활여건의 변화 - 장애인 복지 - 노인문제 - 생활보호 - 공공시설 	취학전 자녀의 어머니 또는 보호자 " 15세 이상 가구원(가구주 포함) " " 15세 이상 가구원(가구주 포함) " 15세 이상 가구주 15세 이상 가구원(가구주 포함)
노동: 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선택 요인 - 실업자를 위한 대책 -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 여성취업 장애요인 - 근로여건 만족도 	15세 이상 가구원(가구주 포함) " " " 임금근로자(15세 이상)

<표 4> 직업선택시 주요 요인(1998)

(단위: %)

	명예·명성	안정성	수 입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1998	2.1	41.5	18.2	16.2	20.7
1995	3.3	29.6	27.1	10.5	29.2
1991	3.1	37.2	29.7	15.1	14.3

- 실업자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직업훈련 기회를 늘림’(27.0%),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채용인원 확대’(21.2%), ‘감원대신 감봉이나 조업단축으로 일자리 보장’(14.8%), ‘공공근로사업 확대’(13.4%), ‘구인구직 정보망 확충’(10.8%), ‘실업수당 늘림’(7.8%) 순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취업자는 ‘직업훈련기회 늘림’과 ‘감원대신 감봉이나 조업단축으로 일자리보장’을, 실업자는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채용인원 확대’와 ‘구인구직 정보망 확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실업자를 위한 대책(1998)

(단위: %)

	실업자에 실업수당 늘림	직업훈련 기회늘림	공공근로 사업확대	민간부문 지원으로 민간기업 일자리확대 유도	감원대신 월 급삭감이나 근로시간 단 축으로 일자 리 보장	저소득자에 생계비 보조	구인구직 정보망 확충
전 국	7.8	27.0	13.4	21.2	14.8	1.8	10.8
취업자	7.4	27.4	12.7	22.5	15.3	1.6	11.1
구직자	9.0	25.0	12.5	23.3	13.2	2.1	13.8
비경제활동인구	8.3	26.6	14.5	19.1	14.2	2.0	10.0

-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는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26.8%), ‘결혼전과 자녀성장 후 취업’(26.4%), ‘자녀성장후 취업’(14.5%), ‘결혼전까지만 취업’(11.6%), ‘가정에만 전념’(10.0%), ‘첫자녀 출산전까지 취업’(7.5%) 순으로 응답하였음.
 - －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은 1991년 13.7%에서 1995년 20.9%로, 1998년에는 26.8%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가정에만 전념’은 지속적으로 하락
 - －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에서 남녀간 인식차는 약 7%포인트이며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인식차는 거의 유사
 - － 반면 ‘가정에만 전념’의 남녀간 인식차는 1995년 7.5%포인트에서 1998년에는 3.1%포인트로 급격하게 축소
-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육아부담’(29.3%),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28.2%), ‘불평등한 근로여건’(12.5%), ‘가사부담’(10.6%), ‘여성의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10.0%),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능력부족’(4.3%) 순으로 응답하였음.

-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여성의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을, 여자는 ‘육아부담’과 ‘불평등한 근로여건’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남녀별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6>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1998)

(단위 : %)

	성별	가정에만 전념	결혼전까지 만 취업	첫 자녀출산 전까지 취업	자녀성장후 취업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취업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
1998	전 국	10.0	11.6	7.5	14.5	26.4	26.8
	남 자	11.6	13.1	8.4	15.0	25.2	23.1
	여 자	8.5	10.3	6.7	14.0	27.6	30.4
1995	전 국	15.8	13.2	-	16.1	34.1	20.9
	남 자	19.6	15.1	-	16.1	32.3	16.8
	여 자	12.1	11.3	-	16.1	35.8	24.7
1991	전 체	21.1	20.2	-	22.4	22.5	13.7

<표 7> 여성취업 장애요인(1998)

(단위 : %)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여성의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채용, 승진, 임금 등)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능력부족	육아 부담	가사 부담
1998	전 국	28.2	10.0	12.5	4.3	29.3	10.6
	남 자	28.8	11.9	11.9	4.6	27.1	10.4
	여 자	27.6	8.1	13.0	4.0	31.4	10.8
1995	전 국	24.7	8.7	9.5	4.3	52.5	
	남 자	24.5	10.8	9.1	5.0	50.3	
	여 자	24.8	6.8	9.9	3.7	54.6	

○ 근로여건 만족도를 근로여건별로 살펴보면 ‘동료간 인간관계’, ‘남녀간 인간관계’, ‘상하간 인간관계’, ‘직무(하는 일)’에서는 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임금’, ‘복리후생’, ‘직장에서의 장래성’, ‘근무환경’, ‘승진’, ‘배치 및 이동’, ‘노사관계’에서는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음.

- 3년전인 1995년에 비해서는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IMF 이후 근로여건이 나빠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표 8>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 %)

		만 족	보 통	불만족
1998	직무(하는 일)	30.3	49.1	20.2
	승진	7.9	27.3	18.2
	배치 및 이동	8.7	33.2	16.5
	임금(일에 비해)	10.7	36.1	52.6
	복리후생	9.2	34.7	32.1
	직장에서의 장래성	11.9	33.0	28.2
	근무환경	18.6	47.2	32.1
	노사관계	4.7	16.0	8.4
	인간관계(상하간)	27.0	56.0	11.8
	인간관계(동료간)	34.8	53.3	5.0
	인간관계(남녀간)	26.4	54.6	4.5
	근로시간	17.5	47.5	34.5
1995	직무(하는 일)	34.9	48.5	16.6
	승진 · 이동	12.5	64.3	23.2
	임금(일에 비해)	17.2	40.6	42.2
	복리후생	15.7	55.7	28.6
	장래성	17.9	51.2	30.9
	작업환경	21.7	48.8	29.5
	인간관계(상하간)	31.4	55.1	9.0
	인간관계(동료간)	43.4	47.7	2.9
	인간관계(남녀간)	23.1	55.9	4.0

IV. 개선점

○ 노동부문에 대한 조사항목 확대필요

- <표 9>에서 보듯이 노동부문의 문항수가 가족, 복지 등 다른 부문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수준
- 따라서 IMF 이후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데에 따른 근로자들의 의식변화를 다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표 9> 조사부문별 문항수 및 내용(가구주 기준, 1998)

	문항수	질문내용
가족부문	11	실제 부모부양 여부 등
복지부문	9	취학전 자녀양육 실태 등
노동부문	5	직업선택 요인 등

○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노동현안문제 조사필요

- 1998년의 조사는 IMF직후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시의 긴박한 문제였던 실업대책, 여성취업문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그러나 이후 계속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하여 평생직장보다는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었고 청년층 실업, 비정규직, 고령자 및 장애인 취업, 근로시간 단축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표 10> 조사내용 확대예시

	문항수	질문내용
노동부문	5(기존)	직업선택 요인 실업자를 위한 대책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여성취업 장애요인 근로여건 만족도
	5(예시)	이직고려시 그 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식 청년층 실업대책 고령자를 위한 대책 근로시간 단축시 여가시간 활용